

보도시점 (전매체) 10.31(목) 15:30

오영주 장관, 전통시장 활성화 현장 확인

-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해 현장 목소리 청취 및 상인 격려 -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강해수)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31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은 1950년 이후에 형성된 청주의 대표 전통시장으로, 충청권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꼽힌다.

육거리종합시장 유현모 상인회장은 “시장에서 창업하는 2~3세 청년상인 비중이 높은 편이고 유명 점포들도 많아, 그런 점포들이 시장 전체에 활기를 돌게 해 주는 거 같다”라고 말했다.

오 장관은 “전통시장을 방문하다 보면 시장에서 창업하는 2~3세 청년상인이 많이 늘어난 것을 접하게 된다”라며, “육거리종합시장도 그 중 한 곳으로 기존 상인과 청년 상인들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현장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처럼 젊은 청년들이 시장에 많이 유입됨으로써, 청년들의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시장 전체에 활력을 주는 거 같다”라며, “정부도 세대교체와 고객층 전환 등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젊은 소비자 층 유입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디지털 전환에 여러 가지 노력을 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날 현장을 같이 찾은 전국상인연합회 이충환 회장은 “다른 해 보다 금년의 경우 정부의 특별판매 덕분에 온누리상품권 인지도가 확실히 높아진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며, “인지도가 높아진 만큼 지류 온누리상품권 사용과 관련한 여러 고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상인들이 직접 발벗고 나서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오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소비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만큼, 취지를 최대한 살려 소비자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상품권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유통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후 오 장관은 가업 승계한 청년상인 점포들을 비롯해 시장 내 여러 점포들을 들러 만두, 짜배기, 김 등을 직접 구매하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담당 부서	소상공인정책관실 전통시장과	책임자	과 장	안원호 (044-204-7890)
		담당자	사무관	유주현 (044-204-7901)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책임자	과 장	신훈묵 (032-450-1151)
		담당자	주무관	한지연 (032-450-1140)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참고**충북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방문계획(안)** 개요

- (일시) '24. 10. 31. (목) 15:30 ~ 16:20
- (장소) 충북 청주시 육거리종합시장(충북 청주시 상당구 청남로 2197번길 42)
- (참석) 장관, 충북지방중기청장, 상인회장 등
- (주요내용) 장보기 및 상인 격려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5:30 ~ 16:00 (30분)	장보기 및 상인 격려	상인회
16:00 ~ 16:20 (20분)	육거리소문난만두 전시·체험관 방문	